

추석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가족이 은혜를 함께 나누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감사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1.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애굽을 떠나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독수리가 거대한 날개를 펴서 새끼 새를 품고 날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업어 인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4). 이는 단순히 순탄한 시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만만치 않았습니니다. 애굽 땅에 모든 장자가 죽던 그 밤에 이스라엘은 어린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습니다. 신 광야에서부터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르비딴에서는 마실 물을 얻지 못했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하는 의심도 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지난 시간이 은혜임을 말씀합니다. 광야 길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생명뿐만 아니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4절에 보듯이, 택한 백성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시내 광야, 곧 말씀이 선포되는 산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회상하게 하셨습니다.

2. 은혜는 삶의 자리에서 흘러보내야 합니다.

은혜는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은혜는 우리 삶에서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이미지를 말씀합니다. 먼저는 ‘제사장 나라가 되라’(6) 합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중재하는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 되라’(6) 입니다. 세상의 방식과는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속적 욕망을 따라 움직이는 어그러지고 거친 세상을 향해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통해 세상으로 흘러갑니다.

추석입니다. 오늘 우리의 감사는 손에 가득한 열매만이 아닙니다. 풍부함만이 아니라 메마름으로 인하여서도,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은혜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이 은혜는 우리가 살아내는 두 가지 삶의 방식,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 세상으로 흘러보내야 합니다. 명절의 보내며,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나아가는 기쁨이 가득한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석 가정예배]

우익가득한
한가위되세요



전주시 덕진구 초당길22 (호성동1가)

<http://zych.co.kr>

[추석 가정예배 순서]

인도 : 가족 대표 한 분

신앙고백 다 같이
 찬 송 393장 다 같이
 기 도 말 은 이
 성경봉독 출애굽기 19:1-6 인도자

1.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삼 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2.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3.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4.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5.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설 교 “독수리 날개로 인도하셨습니다” 말 은 이
 기 도 설 교 자
 찬 송 559장 다 같이
 주 기 도 다 같이

■ 찬송가 393장 _ 오 신실하신 주

- 1 오신실 하신주 내아버지여 늘함께 계시니 두렵없네
그사랑 변찮고 날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 2 봄철과 또여름 가을과겨울 해와달 별들도 다주의것
만물이 주영광 드러내도다 실실한 주사랑 나타내네
 - 3 내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 (후렴) 오신실 하신주 오신실하신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주 나의구주

■ 찬송가 559장 _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

- 1 사철에 봄바람 불어잇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집 즐거운 동산이라
 - 2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잇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 3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 (후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 주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